



- 교우와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복 시리즈 이후에는 구약의 보따리(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진행됩니다.
- 오늘 말씀은 이성삼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 Father's Day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 Bible Explore 사도행전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1 시, 화요일 10:30 분, 토요일 11 시입니다.
- 성도 동정입니다: 김주원 목사(달라스), 니키 자매(한국)
- 안정남 목사님께서 수술을 하시고, 검진을 하셨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다는 소식입니다. 쾌유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 담임목사는 침례교 전국 총회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 오전 11:00

◆ 인도: 김형중목사

찬송 Hymn	1. 주가 일하시네 2. This I Believe 3. 사자와 어린양 4. 선한 능력	다 같이 Together
------------	---	------------------

기도 Prayer	1.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Worship where God's glory comes. 2.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 Worship those longs for the word of the Lord! 3.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Worship full of God's grace. 4. 환우들을 위해 For the sick	다 같이 Together
--------------	---	------------------

찬양 Praise	-----	다 같이
--------------	-------	------

*성경 합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15:31-32 ----- (Luke 15:31-32)	다 같이 Together
-----------------------------	---	------------------

말씀 선포 Sermon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 (Heavenly Father's Forgiveness)	이성삼 목사 Pastor Lee
-----------------	---	----------------------

*찬송 Hymn	-----행복-----	다 같이 Together
-------------	--------------	------------------

*축도 Benediction	-----	김형중목사 Pastor Kim
--------------------	-------	---------------------

* 일어서서 합니다.

오늘의 말씀

◆ 말씀: 누가복음 15:11-32
◆ 제목: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Heavenly Father's Forgiveness)

도입질문: 우리는 왜 용서를 망설이는가?

둘째 아들의 문제는 ()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로서 받아 주셨습니다. "이 내 아들은 () 다시 살아났다고 하시며 잔치를 벌일만큼 () 하셨습니다.

세상의 용서는 행위에 대한 용서에 그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에 대한 용서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화난 이유는 겉으로는 ()의 문제이지만 사실은 형제를 향한 ()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나아감으로써 그리스도안에 있는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형제의 ()을 품는 용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Applicable Questions

1. 용서를 할 사람이 있나요? Do you have anyone to forgive?
2.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나요? How can you forgive?

침례교 전국 총회를 마치며

침례교 전국 총회는 교회나 교단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모임입니다. 전국총회는 남침례회 (Southern Baptist Convention)에 속한 미주 한인 침례교회들의 자율적인 협의 단체입니다. 신약성경의 신앙과 원리에 따라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회원교회들의 상호 관계를 강화하며 협동사업을 돕기 위하여 본 헌법 및 규약을 제정,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의 친목을 도모하며,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각 회원교회의 신앙과 행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통 참여자가 700여 명 안팎인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모임은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있었습니다. 인디애나 폴리스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인상 깊었습니다. 비행기 기장은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인디애나폴리스의 기온을 68도라고 안내했습니다. 연일 100도에 가까운 텍사스의 무더위에 비하면 선선했습니다. 주제는 Rebound였습니다.

첫날은 등록하고 저녁에는 뜨거운 찬양과 집회가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에는 [복음 특강](Essential Christianity)로 유명한 J. D. Greer 목사님이 [배가하는 무브먼트의 4가지 장애물](4 Hinderances to becoming a multi)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가 처음 부임했을 때 300명이던 성도가 현재는 12,000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에게 이런 무브먼트를 만드는 과정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교회의 핵심 리더들을 파송하면 교회 성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과 셋째날 저녁에는 박성근 목사님(LA 새누리)의 "Rebound"라는 주제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침체한 목회를 라바운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가꾸심과 이루심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총회마다 감사한 것은 저녁 집회를 통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말씀 집회와 회의 외에 밤마다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국내선교부와 해외 선교부의 보고는 감동입니다. 국내선교부에서는 개척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매월 재정적으로 후원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목회 코칭(담임목사는 국내선교부 코칭 담당 이사로 사역합니다.)을 통해 목회 전반을 돕고 있습니다. 혼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깨동무하며 목회하는 겁니다. 지난 캐나다에 밴쿠버에서 있었던 목회 코칭에 참여한 모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밴쿠버에서 외로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목회 코칭에서 연결해 주신 목사님의 사랑과 배려로 교회가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다는 감사하고 감동적인 목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부에서 모 선교사님 부부의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적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선교지에서 구령의 열정을 불태우는 선교사 부부의 나지막한 선교 보고에 눈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감사와 감동 그리고 감탄, 총회를 마칠 때마다 찾아오는 거부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행복한 목사 김형중 드림 Copyright© 2024 by Hyung Joong Kim

어스틴 우리교회

Austin Woori Baptist Church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마 22:34-40)
We are a family loving God and others



담임목사 김형중 Joseph Kim
김주원 음악 목사
김재우 안수집사
이윤규 찬양인도자/이선희 반주자
master@austinwoori.org/512-228-4721
Homepage: www.austinwoori.org

Mailing Address: 9741 N Lake Creek Pkwy STE C #214 Austin, TX 78717
우리 교회는 미남침례교(SBC)와 미주 한인침례교 가입 교회입니다

주일예배	오전 11 시
주일학교 Youth	오전 11 시
새벽 기도회	오전 6 시 30 분 (화요일-금요일)
저녁 기도회	오후 9 시 (화요일 -금요일)
성경공부	* 책별 성경 공부 * 기독교 핵심 진리 * 신,구약 이야기 * 성경공부 방법 * 복음과 삶 * 기도반 * 영성반
대학/청년	수요일 오후 7 시

예배 위원

기도	공동 기도
안내	안재석, 순혜진 집사
헌금	예배 전 예배당 입구에 있는 헌금 바구니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